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경 축 재외동포청 개청
		배포일자	2023년 6월 12일(월) 총 2매	
담당 부서	비상대책과	담당자	• 비상대책팀장 김태수 ☎440-5761 • 담당자 이재원 ☎440-5789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위기상황 가정해 통합방위사태 선포
- 인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12일부터 4박 5일간 화랑훈련 실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3년 화랑훈련에 따른 안건심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어창준 17사단장, 이영상 인천경찰청장,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비롯한 지역 안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적의 침투·도발 등 위기상황을 가정해 지역군사령관인 17사단장의 건의에 따라 통합방위사태 ‘을중’을 선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화랑훈련이 실전적인 훈련으로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모든 국가방위요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랑훈련’은 합참 주관으로 후방지역에 대한 전·평시 연계된 작전 시행 절차를 숙달하고자, 민·관·군·경·소방이 총동원돼 2년 주기로 4박 5일 동안 실시하는 훈련이다. 올해는 6월 12일부터 4박 5일간 인천 전역에서 실시되며, 인천시에서는 시청 지하 충무상황실에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해 훈련을 지원한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